

데니스 이야기

샤논 험치트 (SHANNON HUMCHITT)

우리는 BC주 중북부 해안에 자리한 벨라 벨라 (Heiltsuk)라는 외딴 마을에 삽니다. 우리 마을에서 외지로 나가려면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야만 합니다.

우리 셋째 아이 데니스는 2008년에 태어났어요. 아이를 34주 만에 출산했는데 몸무게는 2.64 kg 이었습니다. 청력 검사결과 아이가 난청일 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당시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아이가 2개월쯤 되어 BC주 어린이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 왼쪽 귀가 고도 난청 내지 최고도 난청이었습니다. 그 뒤로 4개월에 한 번씩 어린이 병원에 가서 후속 검진을 받았어요. 검진 결과가 좋고 청력에 아무런 염려거리나 변화가 없어서 이제는 일 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갑니다.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요.

데니스가 아기였을 때는 곧바로 조기개입서비스에 연결하지 않았어요. 갓 태어난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죠. 8개월이 되자 방문서비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우리 마을에 다른 서비스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방문서비스였습니다. 방문서비스 담당자가 아이의 상태를 관찰하고 평가한 후에 아이의 성장 과정에 따라 도움이 될만한 도구를 주었습니다. 서비스 담당자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과 언어 목표를 정하도록 도와주고 '해야 할 일' 목록을 주었어요. 도움이 얼마나 많이 되고 안심이 되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조기개입서비스에 연결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몇 년에 걸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니스를 동네에서 운영하는 신생아 내지 3세를 위한 프로그램에 보냈어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는 더욱 나아졌고, 다음 단계로 어린이집을 거쳐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아이가 올 9월에는 유치원을 시작해요.

아직도 언어음을 훈련하고 어휘를 늘려야 하지만 처음 상황을 감안하면 아이가 참 많이 발전한 셈입니다. 아이는 분기에 한번씩 벨라 벨라를 방문하는 언어병리사의 도움을 받아왔어요.

우리 데니스는 아주 행복하고 느긋하며 탐구를 좋아하고 관찰력이 좋은 사내 아이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준 지원 덕분에 우리는 많은 힘을 얻었고 아이의 삶도 크게 달라졌어요. 아이가 배우고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선생님이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합니다. 앞으로 희망사항은 데니스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아이를 옆에서 지원해 줄 것입니다.

